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복지탐험대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4년 11월 06일(수요일) / 장 소 : 사경대 블루포트(카페)						
<b>참석자 명단</b>	학번	2024****	이름	서*연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신*영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남*원	학번		이름
	학번		이름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b>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 (강지나)</b></p> <p>1. 가난한 아이들은 어떻게 어른이 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 책에서 본 내용에 따르면 빈곤은 보통 열악한 가정환경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부모에게 얻어야 할 교육과 돌봄 등이 결핍돼있는 상태가 많다. 그렇기에 가정이 아닌 센터나 복지시설, 학교의 선생님, 교회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 만약 그러한 도움도 받지 못하는 상태라면 자신이 직접 발로 뛰어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고, 도움을 청하며 부유한 가정에 비해 어렵게 어른이 된다.</li> <li>- *영 : 가난한 아이들은 도움 없이 살아오면서 자존감이 낮아지고, 교육과 의식주가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다. 이러한 상황에서 그들이 나쁜 길로 빠질 위험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복지시설과 다양한 단체들이 도움을 제공하지만, 여전히 지원은 부족한 편이다.</li> <li>- *원 : 가난한 아이들은 상대적으로 부유한 아이들보다 부모로부터 받는 금전적 지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성인이 될 때까지 본인이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아 어린 나이에 독립심과 자립심이 자리잡기 쉽다. 이러한 마음이 생긴다 해도 사회에서 돈 없이 안정적으로 성장하기엔 어렵기에 본인의 계층이 받을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지원을 받거나, 기업, 단체, 개인의 후원 등을 받는 방법도 있다.</li> </ul> <p>2. 빈곤은 왜 없어지지 않을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빈곤 자체가 해결되려면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나 일시적 구호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조적인 변화와 지속 가능한 정책, 교육 등이 필요해 여러 접근 방식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세대를 넘어 가난이 지속되고, 사회적 낙인 등으로 빈곤계층이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쉽사리 주어지지 않기에 빈곤이 없어지지 않는다.</li> </ul> <p>3. 빈곤의 경험이 아이들의 관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일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 빈곤을 겪다보면 교육을 받고 친구와 놀아야 할 시기지만 돈을 벌기 위해 일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다 보면 서로 대화 주제도 고갈날 뿐만 아니라 돈이 없어 친구와의 약속도 미루기 때문에 서서히 관계가 멀어진다. 보통은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를 하는 친구와 다르게 취업을 위해 자격증, 실습을 하며 멀어지거나 빈곤을</li> </ul>						

이해하지 못하는 친구와의 불화로 멀어진다. 극단적인 상황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 범법적인 행동을 하는 등 문제가 생겨 인간관계가 망가지기도 한다.

- \*영 : 가난한 아이들은 친구들과 만날 때 드는 비용 부담 때문에 자주 만나지 못하게 되고, 그로 인해 친구 관계가 점차 멀어질 수 있다. 또한 아이들은 유행에 민감하기 때문에, 유행을 따라가지 못할 경우 친구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 \*원 : 빈곤으로 삶에 녹아든 습관 등으로 가정형편이 다른 친구들과 관계 형성이 어려울 수 있다. 어린 아이들이 친밀감을 형성하기 쉬운 방법에는 만나서 놀거나, 서로의 집에 방문하는 평범한 것들이다. 하지만 빈곤 계층의 아이들은 친구를 만나서 놀 때 드는 소소한 비용이나, 서로의 집을 방문할 때 등에 드는 위축감이나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기 십상이다. 때문에 이러한 현상들의 반복으로, 성격까지 바뀌게 되어 친구들과의 관계조차 깨지기 쉽다.

4. 빈곤은 물질적 결핍 외 어떤 영향이 있을까?

- 꿈이나 취미를 가지지 못하고 자유가 억압되는 상황 자체로 정서적으로 힘들음을 겪을 것 같다.
- 인간관계가 원활하지 못해 열등감, 소외감, 자존감 하락 등의 정서적 아픔을 겪고, 심한 경우 우울증에 걸리기도 한다.
-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빚보증 등 부모님의 문제로 인해 가장이 되어야 하므로 어린 나이에 책임감과 부담감을 느껴 불행해지는 경우가 있다.
- 관심이나 애정결핍으로 인해 타인 의존도가 높아진다.
- 부모님의 통제를 받지 못해 분별력을 기를 수 없고, 스스로를 통찰할 기회가 없어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5. 빈곤 감소를 위한 정부의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사회복지 프로그램으로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실업급여, 아동복지 및 노인 복지 등이 있다.
- 교육과 직업 훈련으로는 교육 기회 확대, 직업 훈련 프로그램이 있다.
- 주거 지원 정책으로는 공공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이 있다.
- 건강 보험과 의료 지원으로는 보편적 건강 보험, 저소득층을 위한 무료 의료 서비스가 있다.
- 세금 정책으로는 소득세와 재정적 지원, 부유세 및 재분배가 있다.

6. 빈곤 감소를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 빈곤층이 정책을 찾고 직접 도움을 청해야 하기 때문에 번거로움이나 무지등으로 정책을 활용할 수 없다.
- 정책에 대한 정보가 인터넷상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아, 노인이나 문맹 등 제약이 있을 경우에는 어떤 제도가 있는지 알 수 없다.
- 빈곤층에 대한 편견이나 차별, 사회적 낙인 등으로 정책 실행이 어렵다.
- 지나치게 복잡한 신청 절차나 제한적인 지원 대상으로 빈곤층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지 못한다.
- 빈곤은 다양한 사회적 요소가 결합된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일차원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려고 하는 정책일 경우 효과적인 해결이 어렵다.

7. 빈곤 감소를 위한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 정책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빈곤 계층 등 취약한 계층에게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저소득층, 실업자, 고립된 지역의 주민들을 파악할 수 있는 효율적인 데이터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빈곤 문제는 복잡하고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 시민단체 등 사회 전반의 참여와 협력이 필요하다.

8. 책의 인물 중 가장 공감되는 인물은 누구인가?

- \*연 : 나는 눈에 띄지만 시선이 무서운 “혜주”의 이야기가 가장 공감이었다. 만만하게 보이기 싫어 화장을 세게 하는 등 자신의 페르소나를 만들어내는 모습이 나와 비슷해 보였다. 또 나도 자존감이 낮아 남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데, 혜주도 룸메이트와 절친에게 계속 의존하는 모습을 보여줘 공감이 되었다. 혜주는 새로운 시도를 계속 실패하다 보니 가족들에게 불신을 얻고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하는 등 극단적인 상황이긴 하지만, 나 또한 수많은 실패를 겪어오면서 자존감이 낮아졌고 사람들 앞에서 말하면서 눈치를 본다는 점이 같았다. 나는 보통 페르소나가 그런 상황에서 발동하는데, 혼자 있을 때나 친한 친구와 있을 때는 소심해서 주문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는데 학교 사람이나 알바에서는 활발해지곤 한다.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기도 했고, 이러한 내 모습에 환멸나기도 했다. 하지만 내 삶을 더 나아지게 만들기 위해 이런 북클럽 활동도 자발적으로 하고, 비교과 프로그램도 찾아 듣는 것처럼 두려워도 한걸음 더 나아가는 것에 스스로 뿌듯함을 느끼고 한다. 혜주도 결국은 의존을 다 버리고 혼자서 나아가는 것처럼 나도 언젠가는 그러기를 바라기에 “혜주”의 이야기가 가장 공감되었던 것 같다.
- \*영 : 저는 연우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진로를 명확히 정하지 못한 채 친구들을 따라 특성화고 회계과에 진학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회계가 저와 맞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중학교 시절부터 관심이 있었던 사회복지사라는 꿈이 떠올랐고, 사회복지에 대해 더 알아보며 진로를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결국 대학 진학을 선택하게 되었고, 지금은 그때의 결정이 참 잘한 선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원 : 나는 ‘영성’의 이야기가 가장 공감이 되었다. 영성은 어릴 때에는 안정적인 가정환경이었지만 점차 힘든 일의 연속으로, 심각한 수준의 빈곤까지 맞게 되었다. 또한 영성의 가족은 외가와 연을 끊다시피한 관계였고, 영성은 어려운 형편에 본인이 가고 싶었던 길도 포기하였으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좋은 아빠가 되고 싶다는 꿈을 지닌 인물이다. 나 또한 영성처럼 외가와 친가 중 한 쪽과는 연락을 잘 하지 않는 편이다. 또한 원래는 다른 분야의 꿈을 오래 꿈꿨었는데 영성과 마찬가지로 여러 제약과, 희박한 가능성에 포기하고 다른 진로로 방향을 틀었다. 마지막으로 나도 영성처럼 좋은 가정을 꾸리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기에 영성의 이야기가 누구의 이야기보다 마음 깊이 와닿았다.

9. 8번의 인물을 만나서 해주고 싶은 말이나

과거의 인물에게 줄 수 있는 도움은 어떤 것이 있을까?

- \*연 : “실패를 반복하며 자존감이 많이 낮아진 상태라 스스로 당당해지지 못하고 남에게 많이 의존했지만, 그것을 다 이겨내고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심리적 독립을 해내는 너를 보고 나도 용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아. 하지만 그럴 때에도 복지관을 꾸준히 다니며 심리 상담, 제도적 지원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도움들을 잘 찾아냈던 게 참 다행이라고 생각해. 이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어 다행이야. 나는 아직 그런 용기를 내진 못했지만, 언젠가는 너처럼 하고 싶은 일을 하는 내가 될 거라고 생각해. 그때의 너처럼 나도 그럴 수 있게 응원해줘, 해주야!” 라고 말해주고 싶다. 그리고 학교 밖 청소년이었던 해주에게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의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사업’에 대해 소개해주고 싶다. 이 사업은 지원 센터에서 학업 복귀를 위해 복교, 검정고시, 대안학교 입학 등을 지원해 주고, 사회 진입을 위해 직업훈련, 자격증 취득, 취업 등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하고 싶었던 애견미용을 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남에게 의존하는 성격을 고치기 위한 상담도 받을 수 있어 과거의 해주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영 : “연우는 신중하게 생각하고 천천히 말하는 성격이라서, 결정을 내릴 때 정말 깊이 있게 고민한다고 느껴. 그런 점이 정말 큰 강점이야. 인테리어 디자인을 선택하고 그 전공에서 잘 해내는 모습을 보니, 자신에게 맞는 길을 찾은 것 같아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라고 말해주고 싶다.
- \*원 : ‘영성’을 실제로 만나게 된다면 나는 무엇보다 먼저 격려의 말을 건넬 것 같다. 영성은 힘든 가정 상황 속에서도 본인에게 주어진 과업을 모두 열심히 수행하려 하였으며, 그런 상황 안에서도 본인의 희망과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욱 두텁게 키워가는 인물이기 때문이다. 그런 영성에게 자존감과 자신감을 북돋아 주는 응원과 지금까지 해온 것처럼 계속해서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해나가라는 지지를 해주고 싶다.

#### 10. 책을 읽고 느낀점

- \*연 : 원래 노인 복지에 관심이 있어 청소년 복지 관련 책은 많이 읽어보지 못했는데, 북클럽을 진행하면서 읽어보게 되어 좋았다. 이 책에서는 빈곤의 이유가 청년, 청소년이 아니라 위 세대부터 대물림된 것이라고 말했다. 과거에는 빈곤의 이유를 개인의 게으름과 문제점 때문이라고 말하곤 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고 가정환경과 사회문제로 인해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나도 힘들게 살았다고 생각했는데,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겪고도 밝게 살아간다는 것을 보고 내 행동을 되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또 내가 만약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된다면 모든 걸 포기했을 것만 같아, 힘든 상황에서도 자신의 꿈을 찾고 그 꿈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대단하다고 느껴졌다.
- \*영 : 이 책을 읽으면서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책 뒤쪽에 더 자세한 설명이 있어서 잘 보충할 수 있어 좋았다. 하지만 사회에 힘든 아이들이 너무 많은데, 그들을 돕는 방법이 한정

	<p>적이라는 것이라는 것을 느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다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p> <p>- *원 : 사회복지분야 안에서 이 책이 상당한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알고 있었다. 하지만 막상 읽어보니 단순히 재미로만 소비돼서는 안 되는 현재 사회를 살아가는 모두가 읽어볼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이 책은 빈곤을 중심으로 여러 인물들의 이야기들을 이루고 있는데, 각자의 사정과 이야기들은 너무나도 다르다. 이러한 점은 현대 우리 사회에 다수가 잘 알지 못하는 사각지대에 가려진 다양한 빈곤계층의 실상을 잘 알려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복지제도는 존재하지만 소외, 빈곤층이 그것을 접하고 누릴 수 없다면 전혀 소용이 없다. 때문에 그 사이에서 사회복지사가 서비스를 잘 연결해 주어야 쓸모가 생기는 것이라고 느꼈다. 빈곤층의 이런 생생하고 자세한 이야기는 사회복지 직업의 존재 가치를 뼈저리게 느낄 수 있어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나에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p> <p>11. 활동 사진</p>
--	---

2024년 11월 06일

참가자대표 : 서\*연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b>운영일시 / 장소</b>	<b>복지탐험대</b> 일 시 : 2024년 11월 13일 (수요일) / 장 소 : 사경대 블루포트							
<b>참석자 명단</b>	학번	2024****	이름	서*연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신*영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남*원	학번		이름	
	학번		이름		학번		이름	
<b>토의 내용</b> (읽은 책을 중심으로)	<p style="text-align: center;"><b>국민을 위한 국민연금은 없다 (유원중 외)</b></p> <p>1. 저자가 비판하는 국민연금의 주요 문제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 현재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노인과 저소득층의 빈곤이 심화되고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제도를 책임져야 할 정부가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적극적으로 줄이려 하지 않고, 사적연금을 활성화하고 있어 경제활동 시기의 빈부격차가 은퇴 이후에도 이어지고 있다. 저자가 비판하는 국민연금의 주요 문제점은 보장성이 미비하고, 세대 간·세대 내 불평등 등이 있다. 국민연금개혁에서는 ‘소득보장론자’와 ‘재정안정론자’가 대립하고 있는데, 둘뿐만이 아니라 학문적 타협을 못하는 학자 등 시각 차이가 더해지다 보니 모두가 만족할 만한 개혁안이 도출되지 않는다. 그래서 저자는 보험료 3%p 인상, 연간 정부재정 GDP 1% 투입, 기금 운용수익률을 1.5%p 개선하는 연금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3115개혁’은 재정안정을 위한 모수 개혁과 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구조개혁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점에서 다른 개혁과 차이점이 드러난다고 느꼈다.</li> <li>- *영 : 국민들의 국민연금에 대해 좋지 않은 시선을 갖고 있다. 사람들은 국민연금은 나중에 돌려받지 못한다고 생각한다. 저자는 “오늘날 연금개혁이 중요한 진짜 이유는 연기금 고갈 문제가 아니라고 믿고 싶다”라고 말한다. 연금이 아무런 개혁 없이 이대로 가면, 멀지 않은 미래에 젊은 세대는 높은 연금 보험료와 세금으로 허덕이고, 노인세대는 약속된 연금을 다 받지 못해 빈곤함으로 고통받게 될 것이 명확하다고 생각한다. 젊은 세대는 노인을 혐오하고 노인은 존재만으로 미움받게 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게 된다면 사회 공동체는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연금 사각지대는 국민연금에 가입 하지 않은 사람들인데, 비정규직 근로자나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들은 충분한 연금 혜택을 받기 어렵다. 특히, 고용 구조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연금 가입률이 낮아져 연금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이 늘어나는 문제도 있다.</li> <li>- *원 : 국민연금을 바라보는 국민들의 시선과 인식과, 그러한 이미지를 바꾸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있는 정부의 행태라고 생각한다. 베이비 붐 시대에 출생한 현재 장년층은 이제 은퇴를 하는 시기에 접어들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 우리나라 출생률은 현재까지 하락하고 있다. 때문에 현재 젊은이들은 국민연금에 대해 긍정적으로 볼 수만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이러한 청년층의 불안을 해소시키거나 줄일 수 있는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고 있다. 국</li> </ul>							

민을 위해서 만든 정책을 국민이 신뢰하지 못하고 좋게 생각하지 못한다면 이는 아주 큰 문제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국민 연금에 대한 국민들의 (현재 부정적인)인식은 국민연금에서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라 생각한다.

2. 국민연금 개혁 방안에 대해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는가?

- 저자의 주장에 동의하는 바이다. 저자는 현재 국민연금에 상당 부분을 문제로 비판하고 있다. 그 주장 중에서도 정부에서 국민연금제도에 쓰는 예산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강력하게 동의한다. 왜냐하면 다른 유럽 선진국들의 국민연금 지출 비용은 우리나라보다 확연히 높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GDP의 약 20% 내외이고, 프랑스는 GDP의 약 14~15% 정도이며 독일은 GDP의 약 10~12% 정도이다. 그에 비해 우리나라는 GDP의 약 4~5%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나라도 앞서 말한 다른 나라들처럼 선진국 반열에 당당히 자리하고 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에서는 선진국인지 모를 정도로 적은 지출 비용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보고 다른 나라에서는 노후 생활에 대한 의미가 꽤나 큰 의미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의미가 작아 보인다.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에게 국민연금은 동아줄과 같은 제도라고 생각한다. 때문에 정부가 국민들이 더 나은 노후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자는 주장에 동의한다.

3. 국민연금의 역할은 무엇이어야 하는가?

- 국민연금의 주요 역할은 국민의 노후 생활을 보장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이다.
- 노후 소득 보장 : 은퇴 후에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활비를 지원해 준다. 개인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 소득 재분배 기능 : 국민연금은 소득이 높은 사람보다 소득이 낮은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더 큰 혜택을 제공하는 구조인데, 이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강화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연금제도는 소득이 높은 낮은 피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해 문제가 생긴다.
- 사회적 연대와 안정망 제공 : 국가가 국민에게 약속하는 일종의 사회적 연대의 표현이 바로 국민연금이다. 모든 국민이 함께 기여하고, 필요한 때에 혜택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회적 안정과 연대감을 형성하는데 기여한다. 하지만 현재에는 국가가 연기금 고갈의 공포를 조성하기 때문에 국민이 믿고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없기에 문제가 발생한다.
- 인구 고령화 대비 :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노년층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국민연금은 사회 전체가 함께 노인 부양을 위한 자원을 마련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현재 연금제도의 문제점은 베이비붐 세대가 부모도 부양하고 자식도 양육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감이 커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데에 있다.

4. 현재 연금제도가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한다고 생각하는가?
- 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주장은 일정 부분에서 타당성이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소득에 따른 연금 수령액 차이 : 가입자가 납부한 금액에 비례해 연금 수령액이 결정되는데, 고소득자는 더 많이 납부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고 저소득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을 받게 된다. 따라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 사이의 빈부격차가 노후 생활에도 그대로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노후에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된다.
  - 연금 수령 기간의 차이 : 평균적으로 소득이 높고 생활 수준이 높은 사람들은 건강관리에 대한 접근성이 좋아 오래 살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고소득자는 연금을 더 오래 수령하게 되어 결국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반면에 저소득자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연금을 받게 될 확률이 높아 불평등이 심화된다.
  - 불안정한 고용과 사각지대 : 자영업자, 비정규직, 저소득층은 국민연금에 꾸준히 가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하거나, 납입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수령하지 못한다. 이런 사각지대가 존재하면서 연금 혜택에서 소외되는 계층이 생기기 때문에 불평등이 심화된다.
  - 국민연금이 불평등을 심화할 수 있는지에는 제도 개선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저소득층을 위해 보조금 제도를 확대하거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강화하면 국민연금이 오히려 불평등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도 있다.
5. 다른 국가의 연금제도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책에 나온 국가 제외)
- 호주의 슈퍼애뉴에이션(Superannuation) 제도  
: 이는 근로자들에게 퇴직 후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강제하는 방식이다. 호주에서는 모든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의 일정 비율(현재 10.5%)을 슈퍼애뉴에이션 기금에 납부해야 한다. 이는 국가가 관리하며, 직원이 퇴직할 때 이 기금을 지급한다. 개인은 추가로 슈퍼애뉴에이션 계좌에 자금을 추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더 나은 퇴직 준비가 가능하다.
  - 일본 연금제도  
: 기본적으로 국민연금과 후생 연금의 2층 구조로 되어 있어, 국민연금을 통해 기본 생활을 보장하고, 후생연금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노후 소득을 제공하는 방식이다. 또 개인형연금저축(iDeCo)와 같은 저축형 연금 제도를 통해 개인의 상황에 맞게 추가적인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7. 책을 읽고 느낀점
- \*연 : 국민연금 제도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아버지가 군인이셔서 공무원연금을 받기 때문에 국민연금에 대해 자세히 알아갈 기회가 없었다. 이 책으로 국민연금의 정의와 문제점, 그리고 저자의 해결



방안 등을 알 수 있게돼서 좋았다. 개인적으로 책을 읽으면서 든 생각이 있는데, 물론 공무원 연금이 일반 국민이 받는 것보다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만큼 받지 못하는 혜택도 많고 업무강도가 세다는 점에서 그저 비판하기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다. 평소애 아버지를 보면 주말에도 근무를 서실 때가 있고, 훈련을 하시면서 춥고 험한 곳에도 많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나라의 일을 하며 인생을 보내는 것에 대해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느꼈다. 그렇다고 해도 나라의 국민연금 개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 정부의 노력과 책임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저 5년마다 한 번씩 모여 얘기만 나누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국민연금을 생각해 혁신적인 개혁안이 나왔으면 좋겠다. 책에서 말했듯이 국민연금의 문제 원인은 고령화 뿐만 아니라 저출산도 있다. 확실히 국민연금의 고갈 문제가 언급되고 난 후, 부모님을 부양해야 하는 청년세대들이 부담감을 느껴 출산하지 않으려고 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국민연금이 개혁되어야 저출산 등의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 책을 읽으며, 어려워서 곤란할 때도 많았지만 하나의 문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닌 여러 측면에서 국민연금의 문제와 사회 현상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기에 좋은 시간이 되었던 것 같다.

- \*영 :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자세히 알지는 못했다. 이 책을 통해 국민연금에 대해 더 많이 생각하게 되었고, 다른 나라들의 연금제도와 그들이 시행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연금제도와 비교하면서, 국민연금 개혁이 더 빨리 이루어졌다면 재정 안정을 더 빨리 찾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마지막 부분에서 “연금이 망하고 나라가 흥할 방법은 없다”라는 말이 인상 깊었다. 이 말은 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연금제도를 꼭 바꿔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들게 했다. 우리가 미래에 연금제도로 인해 피해를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생겼다.

- \*원 : 나는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이라는 제도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다. 이런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어떻게 나뉘는지는 이 책을 읽고 알 수 있게 되었다. 무엇보다 국민연금에 우리나라가 어느 정도의 비용을 쓰는지는 아예 알지 못했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나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현저히 적은 액수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왜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다. 더 지출을 하여도 재정에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보고는 더 이해가 가지 않기도 하였다. 다른 분야에 더 쓰는 것에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 하는 생각도 들었지만, 이는 정치를 비롯한 다른 것과는 긴밀한 이유가 있어 비용을 늘리기는 쉽지 않다는 것도 이해는 되었다. 하지만 다른 것이 아닌 국민의 노후와 직결되는 문제를 이렇게 계속 별다른 개정 없이 방치를 해왔다는 것은 속히 방안을 내놓은 것이 조속해 보인다. 국민연금은 나중에 살아갈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적절한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의 질 높은 노후를 위한 중요한 제도를 나 몰라라 내버려 두는 건 큰 문제라 여긴다. 그저 책의 저자가 바라는 것처럼 나 또한 하루빨리 국민연금의 탈바꿈을 외치는 바이다.

	8. 활동 사진
--	----------

2024년 11월 13일

참가자대표 : 서\*연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p><b>북클럽 팀명</b></p>	<p>복지탐험대</p>							
<p><b>운영일시 / 장소</b></p>	<p>일 시 : 2024년 11월 17일(일요일) / 장 소 :</p>							
<p><b>참석자 명단</b></p>	학번	2024****	이름	서*연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신*영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남*원	학번		이름	
	학번		이름					
<p><b>토의 내용</b> (읽은 책을 중심으로)</p>	<p style="text-align: center;"><b>당신은 아파했던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장우석)</b></p> <p>1. 20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정신질환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울증 : 학교 졸업, 사회 진출, 독립 등 인생 전환기에서 겪는 스트레스와 부담으로 우울증이 유발됨.</li> <li>- 불안장애 : 사회적 불안장애, 공황장애, 일반 불안장애 등이 대표적으로, 다양한 상황에서의 부담과 압박이 불안장애로 이어짐.</li> <li>- 성격장애 : 경계성 성격장애나 자기애성 성격장애 등이 흔히 나타나고, 비교적 어린 시절부터 형성되어 20대에 특히 두드러짐.</li> <li>- 섭식장애 : 외모와 신체 이미지에 대한 불안감으로 인해 폭식증, 거식증과 같은 섭식장애가 발생할 수 있음.</li> <li>- 양극성 장애(조울증) : 에너지와 활동 수준이 급격히 변하며 조증과 우울증을 반복하는 것이 특징임.</li> <li>-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 사고나 폭력 같은 큰 트라우마나 강력한 스트레스를 겪은 후 발생할 수 있음.</li> <li>-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장애(ADHD) : 소아ADHD가 성인ADHD로 이어지거나 새롭게 진단받는 경우가 많음.</li> </ul> <p>2. 정신질환에 대해 처음 접했을 때의 생각과 지금의 생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 정신질환을 처음 접했을 때에는 극복하기 어려운 질병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도 그럴 것이 주변인들 중 정신질환이 나왔다고 한 사람이 없었고, 스스로도 우울해질 때면 극복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책을 읽고 나서는 완치는 불가능하더라도 스스로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자아를 깊이 이해하고, 결국 더 큰 행복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li> <li>- *영 : 어릴 때 드라마를 통해 처음으로 정신질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드라마에서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을 부정적으로 묘사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이 무조건 나쁜 사람이라는 편견이 잘못되었음을 알게 되었고, 정신질환이 생</li> </ul>							

각보다 훨씬 다양하다는 것도 깨달았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경미한 정신질환을 겪고 있지만, 증상이 심하지 않거나 눈에 띄지 않으면 이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병원을 찾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다 증상이 심각해졌을 때에야 병원을 방문하게 됩니다. 정신병원에 다닌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편견은 여전히 강하지만, 지금보다 더 나은 인식을 형성할 방법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원 : 정신질환은 갑자기 찾아오는 것보다는 서서히 사람을 잠식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정신질환을 처음 접했을 때는 나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았지만 이 책을 읽고 나니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발병할 수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또한 한 번 정신질환에 걸리면 완전히 호전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었는데 작가처럼 노력하여 즐겁게 인생을 누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3. 정신질환 예방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사회적 지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 \*연 :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정신건강 교육과 상담 서비스는 이 안전망을 구축하는 핵심적인 요소이다. 우선, 정신건강 교육은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정신질환을 이해할 수 있게 한다. 학교나 직장에서의 정신건강 교육, 지역사회 세미나 등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이해와 편견을 줄여 나가면, 사람들이 필요할 때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기에 매우 중요하다. 상담 서비스 또한 사람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무료 또는 저렴한 서비스, 익명 상담 서비스 등을 지원함으로써 초기 단계에서 감정을 표현하고 조언을 받을 수 있게 돕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심리적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이 정신질환을 예방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 \*영 : 정신건강 지원 시스템 구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신건강을 예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역 사회 상담 센터를 확대하고,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저렴하거나 무료로 제공되는 상담 서비스를 늘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온라인 상담 플랫폼을 활성화해야 합니다. 심리적 위기 상황에서는 긴급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 24시간 핫라인이나 전문 의료 체계도 강화해야 하고 이러한 시스템은 사람들이 문제를 더 심각하게 키우기 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원 : 정신질환 쾌유를 위한 장기적 지원이 제일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단기적으로 지원을 하고 질환이 나아지는 것 같으면 지원을 전처럼 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완전히 없어지지 않았는데 끊으면 소용이 없으니 오랫동안 지원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 자신의 삶에서 경험한 아픔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이었고,

그 아픔이 나에게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가?

- \*연 : 최근 겪은 가장 큰 아픔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함께 다닌 친구들과 멀어졌을 때이다. 한때 모든 것을 나눌 수 있을 만

큼 가까운 사이였지만, 대학 입시를 준비하면서 점차 거리감이 생기더니 결국 대화조차 나누지 못할 정도로 멀어졌다. 그때는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만큼 인간관계에 실망한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그래서인지 아직도 친구와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두렵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더라도 과거의 일이 반복될까 걱정이 된다.

- \*영 : 친구들과 싸웠을 때가 가장 힘들었습니다. 제일 친했던 친구들과 싸우고 며칠 동안 대화를 나누지 않았던 시간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 서로 생각을 정리한 후 다시 만나 이야기를 나눴고, 그 과정을 통해 서로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을 계기로 말이나 행동을 더 조심해야겠다는 교훈을 얻었고, 친구들과 한 번쯤은 서로의 마음을 솔직히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 \*원 : 나는 초등학교 때 오랫동안 같이 지내시던 할머니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다. 막상 그 당시에는 충격을 크게 느끼진 못했다. 감격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아예 충격이 없었다. 시간이 지나고 서야 실감이 안 나서 충격을 받지 못한 것이었던 것을 깨달았다. 나는 지금까지도 일상생활 중에 갑자기 할머니가 생각나고, 같이 지내던 시간들이 생각나 슬프기도 하다. 이 사건은 옆에 있던 사람에게 항상 잘하자라고 생각하게 되는 영향을 주었다.

5. 이 책을 보고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의 극복을 위해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연 : 자신을 이해하고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책에서 강조하는 것과 같이 아픔과 상처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정신질환을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간관계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주변의 이해와 지지가 큰 힘이 되며,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돕는다. 결국 정신질환을 극복하는 과정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격려와 이해를 받으며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 \*영 : 하루를 마무리하며 일기나 다이어리를 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기를 쓰면서 스스로 반성할 점이나 다짐을 기록하고 이를 인지하며 하루를 돌아보는 시간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정신질환을 겪어본 적이 없어 일기 쓰기가 얼마나 효과적인지는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책에서 일기 쓰기가 정신질환 예방에 좋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음을 정리하고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 유익한 방법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 : 본인의 의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작가는 정신질환 후기부터 지금까지도 건강한 사람으로서 사회복지사로서 하지 않았던 노력들을 거듭하여 지금처럼 온전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주변인의 도움, 의료적인 지원 모두 중요하지만 본인이 나아질 의지가 없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은 소용이 없다고 생각한다.

6. 책을 읽고 느낀 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 : 이 책을 읽으면서 정신질환에 대해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었다. 원래 정신질환은 극복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수용해나가는 것만으로도 많이 호전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책의 저자도 정신질환의 호전과 악화가 계속 반복되었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 자신을 점차 알아갈 수 있었고, 징조가 나타날 때마다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배워나갈 수 있었다.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꾸준히 노력하며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자를 보고, 내 삶은 어떠한지 돌아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li><li>- *영 : 정신병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서, 제 마음속에 정신병에 대한 편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저자는 어린 시절부터 극심한 정신질환을 겪었지만, 대학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며 정신건강사회복지사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정신질환을 인정하고 이를 이겨내기 위해 노력한 모습은 평범한 사람도 해내기 어려운 일임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의지와 다짐으로 이루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직업을 경험하며 평범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살아오신 것 같아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li><li>- *원 : 처음 책을 알았을 때는 제목을 보고 어떠한 내용일지 꽤나 궁금해졌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사는 남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는 역할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사회복지사가 정신질환을 극복하였다니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다. 책은 마치 작가의 삶의 일부분을 떼어다 놓은 것 같았다. 정신질환이 어떠한 것인지 아주 자세하고 솔직하게 자신이 겪은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래서 극심한 정신질환을 겪으면 사람이 사람으로 사는 게 아니구나 라고 느꼈다. 하지만 작가는 과연 잘 극복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금세 깨고 병을 극복하여 제목처럼 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이러한 모습은 나에게도 삶의 의지를 다시금 주는 뜻깊은 장면이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를 꿈꾸는 나에게도 위대함과 존경스러움이 들게 만들었다. 책을 읽고 나서 나도 작가의 이러한 노력을 본받아 남을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는 사회복지사가 되자고 마음먹었다.</li></ul> <p>7. 활동 사진</p>
--	--

2024년 11월 17일

참가자대표 : 서\*연

### 심비우스 북클럽 운영보고서

<b>북클럽 팀명</b>	복지탐험대						
<b>운영일시 / 장소</b>	일 시 : 2024년 11월 20일(수요일) / 장 소 : 사경대 블루포트						
<b>참석자 명단</b>	학번	2024****	이름	서*연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신*영	학번		이름
	학번	2024****	이름	남*원	학번		이름
	학번		이름				
<b>토의 내용 (읽은 책을 중심으로)</b>	<p><b>선량한 차별주의자 (김지혜)</b></p> <p>1.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제목과 표지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연 : 선량하다는 말과 차별주의자가 함께 쓰인 제목을 보고 모순적이라고 느껴져, 선량한 의도로 했던 말들이 차별의 표현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 표지에 나온 검은 오리가 상처를 입은 것처럼 표현했는데, 이러한 모습이 소수자가 겪는 어려움을 상징한다고 느꼈다. 이미지를 보며 우리도 무의식적으로 차별에 동참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차별을 인식하지 못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됐다. 이런 주제를 담고 있는 책을 읽는다면, 현대 사회의 다양한 차별 문제를 다룰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li> <li>- *영 : 책 제목을 보고 겉으로는 선량해 보이지만, 무의식적으로 차별적인 태도나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표지를 보았을 때, 네 마리의 흰 오리가 한 마리의 검은 오리를 상처 입히는 모습처럼 느껴졌습니다. 흰 오리들이 검은 오리를 차별하는 장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것처럼 보였다.</li> <li>- *원 : 책의 제목은 처음 보았을 때에는 약간의 호기심이 들었지만 금세 어떤 것을 이야기할지 알 수 있었다. '선량한 차별주의자'라는 제목은 아주 간결하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양심을 관통하는 말이라고 생각하였다. 선량함과 차별이라는 글자는 누가 봐도 극과 극의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 책의 제목에는 동시에 존재하고 있었다. 제목만 보아도 여러 생각이 들게 해주는데, 나도 이러한 사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앞서 들었다. 차별은 당연히 없어지고 평등이 앞서는 세상이라고 모두가 믿고 있지만, 차별을 아예 안하며 사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어떤 사람이든 쉽게 부끄러워질 수 있는 제목이다. 책의 표지에는 흰 오리들과 한 마리의 검은 오리가 있다. 흰 오리들은 왜인지 고개를 쳐들고 있다. 그에 반해 검은 오리는 왜인지 고개를 숙이고 있는 데다가 상처투성이이다. 우리는 상황에 따라 상대에 따라 흰 오리가 될 수도 있고, 검은 오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되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였다.</li> </ul>						

2. 책에서 다루는 차별 문제 중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연 : 퀴어 문화축제를 반대하며 생기는 많은 상황들이 인상 깊었다. 책에서는 중·고등학교나 대학교 축제가 마음에 들지 않아도 단순히 참석하지 않을 뿐, 방해하거나 훼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하지만 퀴어 문화축제에서 벌어지는 반대 행동은 단순한 불만이 아니라, 편견에서 나온 '증오 범죄'라는 점이 놀라웠다. 이런 범죄는 퀴어뿐만 아니라 장애인, 여성, 외국인 등 여러 집단에서도 일어나며, 우리 사회의 차별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 특히 이런 행동들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집단적인 폭력과 시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생각했다.
- \*영 : 비정규직에게는 식용유 세트를, 정규직에게는 햄 세트를 주는 사례가 인상 깊었습니다. 아직 사회생활을 해본 적은 없지만, 조직 내에서는 모든 구성원이 동등하게 존중받고 같은 가치를 인정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방식으로 차별을 받는다면 정말 슬플 것 같고, 모두에게 동일한 선물을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 \*원 : 작가가 책을 쓰게 만든 원인이자 책에서 계속 일컫는 장애인 비하 발언이며 차별이 기조에 깔린 '결정 장애'라는 표현이 가장 인상 깊다. 왜냐하면 나도 이런 표현을 사용해 본 적이 있고 누가 말하여도 크게 이상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 하지만 내가 장애인이었다면 이런 말에 대해 뭐라고 생각할까? 책을 읽으며 내내 생각했다. 사실 차별이라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아주 부정적이다. 이런 말 한마디를 넘어 행동으로 보이는 차별이 그려진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런 말 한마디는 당사자에게 아무렇지 않을까. 일상에서 생각 없이 내뱉는 이런 표현이야말로 모든 차별의 시발점이 아닌가 생각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말 한마디도 다른 행동, 차별들 만큼이나 심각한 문제이고 우리가 의식해서 고쳐 나가야 하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였다.

3. 책에서 다루는 차별 문제 중 가장 심각하거나 해결이 어려운 것은 무엇이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인종 차별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그 이유는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져 온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한 국가에 국한되지 않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과거 노예제도와 식민주의의 잔재는 특정 인종에 대한 낙인을 만들어냈고, 이는 사회적 구조와 법적 제도에 깊이 스며들어 있다. 예를 들어, 같은 잘못을 저질렀을 때도 인종에 따라 처벌이 다르게 내려지는 사례는 현재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차별은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닌 현재 진행 중인 문제이며, 복합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해결이 특히 어렵다고 생각한다.

4. 내가 경험했던 차별은 어떤 것이 있었고,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 \*연 : 나는 쌀가마니 20kg을 한 손으로 들 수 있을 만큼 힘이 센 편이다. 하지만 방학 동안 요양원에서 단기 알바를 하면서 여학생은 힘이 약할 것이라는 이유로 서류 작업으로 일을 옮겨주셨을 때 배려라는 행동도 편견에서 비롯될 수 있다는 걸 느꼈다. 또 "여자치고 말이나 행동이 거칠다"라는 말을 자주 들었는데, 남자와 여



	<p>자의 차이가 얼마나 크기에 이런 말을 들어야 하는지 억울한 마음이 들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성별에 따른 고정관념이 얼마나 일상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지 깨닫게 되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영 :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는 말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자는 힘이 약하니까 남자가 하자"거나 "여자가 무슨"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몇몇 말은 거슬렸지만, 나머지는 별다른 생각이 받아였고, 어릴 때부터 이런 말을 자주 들어서 그런지 그 말에 수긍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 보니, 그것들은 차별적인 말이었고, 다음에 이런 말을 듣게 된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li><li>- *원 : 요리에 관심이 전혀 없는 편인데 친척들과 만나서 이런 이야기를 나눌 때에 가끔씩 여자애가 그런 거에 관심이 없으면 어떡하냐는 식의 말을 가끔 들어봤다. 그런 말을 들어도 딱히 기분이 나쁘진 않았다. 어른들이 그런 말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나도 부자연스럽다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엄연한 성차별 표현은 맞다고 생각한다.</li></ul> <p>5. 특정 복지정책이 "선량한 의도"로 만들어졌으나 결과적으로 차별적 효과를 낳은 사례가 있다면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때때로 수급자들에게 사회적 낙인 효과를 발생시킨다. 특히 복잡한 신청 과정으로 인해 실제 필요한 사람들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준을 단순화하고, 혜택을 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켜야 한다. 또 주거 지원 정책은 저소득층의 주거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만들어졌지만, 특정 지역에 저소득층을 집중시켜 "가난한 동네"라는 낙인을 찍는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다양한 계층이 함께 거주할 수 있는 '혼합형 주거 모델'을 도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선할 수 있다.</li></ul> <p>6. 복지 정책에서 "도와준다"라는 태도가 오히려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나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li>- *연 : 때때로 도움을 받는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태도가 마치 사람들이 무능하거나 불쌍한 존재로 느껴지게 만들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도움을 주려는 사람은 우월감을 느낄 수 있지만, 도움을 받는 사람은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자신이 약하다고 생각한다. 이런 방식은 '배려'가 아닌 '상대적 무시'나 '차별'처럼 느껴질 수 있다. 진정한 복지 정책은 사람들이 자존감을 잃지 않도록, 존중받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한다.</li><li>- *영 : 도와준다는 표현은 도움을 받는 사람을 수동적이고 의존적인 존재로 보이게 하여, 수혜자에게 열등감을 심어주거나 자신의 상황이 비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 혜택을 받는 사람들이 주변으로부터 가난한 사람으로 여겨져 자존감이 낮아지고 사회적 배제가 심화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li><li>- *원 : 그렇다. 왜냐하면 도움을 주려는 이의 의도가 선한 것과 상관없이 도움받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이 있고, 도움을 택하는 방법과 택하지 않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li></ul>
--	--

하기 때문이다. 오히려 당사자가 원치 않는 지나친 도움은 당사자의 자존감 하락과 불쾌한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상처를 줄 수 있다고 본다. 도움을 줄 때에도 받을 이의 의사를 묻고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7. 차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인의 변화와 공동체의 변화 중 어디에 더 집중해야 하는가?

- \*연 : 공동체의 변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차별적인 구조와 문화가 존재하는 공동체에서는 그 변화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공동체가 변해야만 차별을 없애는 정책과 제도가 효과적으로 실현될 수 있고,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변화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생각한다.
- \*영 : 저는 개인의 변화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이 차별에 대해 인식하고, 말을 조심하며 행동에 신중을 기울인다면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개인들이 변해야 공동체도 변한다고 믿습니다.
- \*원 : 개인이라고 생각한다. 개인이 차별을 알고 바꾼다면 이는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변화로 연결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는 곧 주변 사람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개인의 변화에 더 집중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바이다.

8. 실생활에서 무의식적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만들어본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 편견 인식하기 : 고정관념이나 편견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그에 맞춰 행동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 다양성 교육 참여하기 : 다양성, 평등에 대한 교육이나 워크숍에 참여해 다양성에 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기.
- 다양한 의견 존중하기 :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존중한다.
- 배려 있는 언어 사용하기 : 특정 집단을 비하하는 발언이나 농담을 피한다.
- 차별을 목격했을 때 반응하기 : 차별적인 언행을 목격했을 때 즉시 반응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9. 지금까지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차별 해소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동일시 강조 : 모든 사람을 동일하게 대하는 것보다 다양성의 가치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 기존 시스템 유지 : 기존의 불평등한 제도나 구조를 그대로 두고, 일부 표면적인 변화만 시도하는 경우가 많다.
- 차별을 묵인하거나 무시 : 차별을 묵인하거나 방관하는 태도보다 직접적으로 반대하고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 피해자 중심의 시각만 강조 : 피해자에게만 집중하고, 가해자의 태도 변화나 사회적·구조적 문제를 간과한다.
- 표면적인 변화에만 집중하기 : 차별 해소를 강조하는 정책이나 캠페인은 많지만, 실제로 현실에서 차별을 줄이기

위한 실질적인 변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10. 책을 읽고 느낀 점

- \*연 : 책을 읽고 차별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면서, 우리가 의도치 않게 차별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달았다. 특히 퀴어 문화축제 반대와 같은 상황 속에서, 편견이 어떻게 증오 범죄로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이 책은 차별이 특정 집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무의식적으로 동참하고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준다. 나 또한 차별을 깨닫지 못한 채 지나쳤던 부분들이 많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전히 성별, 장애, 인종 등에 대한 차별이 사회 곳곳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책을 통해 차별을 줄이기 위한 개인과 공동체의 노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다. 차별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떤 방식으로 영향을 미치는지 더 잘 이해하게 되면서, 앞으로는 더 신중하게 행동하고 생각해야겠다고 다짐했다.
- \*영 : 이제는 내가 경험한 상황들을 차별적인 시각으로 다시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차별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무의식적으로 차별적인 태도를 취한 것 같습니다. 또한, 내가 경험한 것 외에도 사회에는 내가 알지 못한 더 많은 차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던 나 자신을 반성하게 되었고, 앞으로는 다른 사람들의 차별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야겠다고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 \*원 : 이 책은 양심을 찌르는 제목처럼 내용 또한 끝날 때까지 나의 과거를 뒤돌아 보게 만들었다. 모두가 본인은 착하다고 믿으며 애써 포장하지만 정작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따로 있다. 이 책은 그렇게 잊고 있던 개인의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아주는 역할을 해준다. 차별이라 외치는 이들에게 따가운 눈초리가 아닌 같이 외쳐주며 모두의 평등을 외칠 때 비로소 모두가 행복할 세상이 올 수 있을 것이라고 느끼게 되었다. 책에서는 본인이 차별을 느끼지 못할수록 시야에 갇히게 된다고 한다. 그런 시야에서 벗어나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짊어고 넘어가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하였다. 시야를 닫아버리면 타인을 향한 차별은 느껴지지 않고 그렇게 세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개인이 자신을 바꿔나갈 때 공동체가 바뀌고 세상이 바뀔 수 있으리라 이 책을 보고 생각하게 되었다.

11. 활동 사진

2024년 11월 20일

참가자대표 : 서\*연